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김 신 이*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심리적 갈등과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영적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의의와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여 그들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 7명이며,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은둔형 외톨이 자녀의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을 요약된 의미 단위 53개, 하위구성요소 21개, 구성요소 6개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섯 가지의 구성요소는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 '바다으로 치닫는 나의 믿음',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고, 부모의 힘듦과 소진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 현상학적 질적 연구, 심리적 갈등, 영적 경험

•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5월 7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9일

* 고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김신아의 박사학위 논문(2019년 8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기 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현상이 있었고(김종진, 2006) 당시는 일본에서만 있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졌다(백형태 외, 201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경부터 은둔형 외톨이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인중(2005)은 30만~50만 명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설로 굳어졌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등 단어들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은둔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磯部 潮, 2004).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친구가 하나뿐이거나 혹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 가족, 개인 간의 소통이 모두 폐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폐쇄성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박현숙, 2004).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공포증, 강박, 우울증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신증은 아니다. 하지만 초기에 치료적인 개입이 없으면 사회 참여가 더욱 어렵고 정신증과 연결되기 쉽다(김예슬, 2007).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10년 동안 했던 김재주(2018)는 은둔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자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밖으로 나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싫고, 밖으로 나가거나 학교에 가고 싶지만 사회 장면

에서의 고통이 집안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방 안을 도피처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의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행동 특성 때문에 치료나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정지현, 2011). 은둔 상태를 방치하면 그 상태를 헤치고 벗어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자극을 줘서 더욱 은둔형 외톨이를 은둔하게 만드는 존재인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큰 자원이기도 하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은 아픔, 미래에 대한 걱정, 정서적 괴로움, 슬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磯部 潮, 200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은둔하게 된 이유가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거나, 절망감, 장래에 대한 불안, 비판 등을 느껴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약물치료까지 받기도 한다(황순길 외, 2005).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여, 가족의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시켜 은둔하고 있는 가족에게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 맺는 이는 대부분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은둔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 경험을 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은 비행청소년의 부모보다 더 큰 죄책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정도가 심하고 은둔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장기화 될수록 부모는 이미 탈진상태이거나 우울, 무력감, 자책감, 분노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초조한 마음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인 자녀를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뭐라도 시켜보려고 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은둔 기간이 긴 자녀를 둔 부모는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자녀의 작은 변화에 따

라 컨디션이 쉽게 좌우되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은둔문제에 대해 친인척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불편해하여 자녀 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도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이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은 영적 경험에도 변화가 생기게 한다. 사람들은 심리적 갈등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진실하게 되기도 한다(이성록, 2007). 크리스천 부모는 심리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 성숙을 체험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05년도에 반영된 ‘추적60분’ 방송프로그램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와 후속 프로그램 ‘나는 방에서 나가고 싶다’를 방영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 적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연구로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의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양미진 외(2009)는 은둔형 외톨이의 촉발요인으로 학교부적응, 빈약한 친구관계,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하였으며, 김효순(2014)은 고등학생 은둔형 외톨이와 인터넷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인터넷 게임중독정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백형태 외(2011)와 양미진 외(2007)는 은둔형 외톨이를 변별해 내기 위한 척도개발연구를 하였다.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고스케 유코(2012)는 은둔형 외톨이에 미치는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노여진(2007)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모자중심의 가정생활, 경제부흥, 성별 역할분담, 학력주의, 저출산율, 단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하였으며, 차이점은

로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사고, 유교문화의 수용양태, 은둔기간 및 증상의 차이, 개인행동에 대한 관념, 일상생활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김예슬(2007)의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가족치료적인 관점을 가진 연구는 박현숙(2004)과 이경선(2015) 등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개발한 은둔형 외톨이 부적응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치료하고 개입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은둔형 외톨이 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크리스찬 부모가 겪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크리스찬 부모가 겪는 경험 그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가 은둔생활을 시작하면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알지 못했다. 자녀가 은둔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부모가

보살핌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서 자녀의 은둔 문제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압을 느끼고 있다(松本 訓枝, 日比 薫, 谷口 惠美子, 2018).

은둔형 외톨이와 가장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부모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은둔의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는 전문가의 역할 못지않게 자주 접촉하게 되는 부모의 임무가 중요하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정서적 공감과 지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친절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에게 요청되는 이상적인 자세다(齋藤環, 2002). 은둔형 외톨이와 부모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존중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磯部 潮, 2004).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를 상담할 때 본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황순길 외, 2005). 일본 후생성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지원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였다(厚生労働省, 200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하는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행동이 해결 안 되더라도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이면서 가족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여 은둔하고 있는 자녀에게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부모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줄이는 것이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지원 목표 중 중요한 요소이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의 심리적 지지자원이 되며,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낮은 경제력을 가진 경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부모를 도울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의 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쓰

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이 자조 모임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자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자녀의 은둔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는 이성과 감성의 힘으로 갈등을 견딜 수 있게 되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齋藤まさ子, 本間蕙美子, 真壁あさみ, 内藤 守, 2013).

2)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심리적 갈등

(1) 심인적 갈등

자녀가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슬픔, 정서적 괴로움, 아픔,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磯部 潮, 2004). 자녀가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며, 뭐라도 시켜보려고 하거나 학교를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쉽게 초조해진다. 자녀의 은둔 문제가 심각할수록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우울, 자책감, 분노, 무력감 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탈진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자녀의 은둔이 장기화되면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자녀 은둔의 원인이 아닐까 하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장래에 대한 걱정, 비판, 절망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약물치료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황순길 외, 2005).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보이는 공격성향에 대해 묵인하거나 자책하게 된다(황순길 외, 2005). 흔히 부모는 오랜 기간 은둔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로 인해 자녀의 미세한 변화에도 감정변화가 크게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은 부모를 소진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은둔문제를 친인척에게 드러내고 상담하는 것은 수치스러워함으로 결국 그 부모들조차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리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탈진상태이거나 우울, 무력감, 자책감, 분노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은 비행청소년들 보다 큰 죄책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부모도 자녀가 은둔하는 문제에 대해 자녀가 힘들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모자신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은둔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강한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齋藤まさ子, 本間惠美子, 眞壁あさみ, 内藤 守, 2013).

(2) 관계적 갈등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커서 자녀에 대한 수용력이 적고 은둔문제에 대해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기력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이 거의 없는 부모도 많았다. 부모가 은둔의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고 대체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능력도 부족하고 설사 파악하더라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일본 히키코모리의 부모도 자녀가 은둔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고,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가족, 주변 사람들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에게조차 수용 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齋藤まさ子, 本間惠美子, 眞壁あさみ, 内藤 守, 2013).

3)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영적 경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은 크리스찬의 삶과 신앙에 있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장국, 2010).

지성(知性)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지적 활동만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섭, 2005). 인지적 경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정의적 영역이란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경험하는 정서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적 영역이란 분노, 죄책감, 평안, 우정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행동적 영역이란 인지적, 정의적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도, 말과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의 변화에서 완성되며,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온전한 체험에서 근거하는 것이다(강용원, 2014). 본 연구에서 행동적 영역이란 기도, 예배, 용서, 헌신 등을 말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영적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 받은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 연구에서 참여자는 3~4명 혹은 5~10명으로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Creswell, 2010). Polkinghorne(1989)은 연구자가 5~25명의 현상을 모두 체험한 개인과 면접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Creswell,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여 일반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7명으로 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심층면접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에 대한 상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표한 부모, 둘째, 자녀 연령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셋째, 다음의 3개의 요건 중 2개 이상이 들어맞는 경우이다.-가끔 일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같이 놀거나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한명이다.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 연령이 만 30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7명으로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목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법으로 선택하였다. 녹음에 대한 동의와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 명료화 등을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사용하였다. 절차는 먼저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세 명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소개받았지만 두 명의 부모가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세 명 중 한 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전달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5명 소개받았다. 그 중 한 명은 자녀가 은둔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지인이 소개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중 한 명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모임을 소개받았다. 연구자는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모임에 연락을 취해 부모모임의 일정과 장소를 알게 되었고 운영진의 동의를 통하여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대상자 1명과 연결되었고, 그 대상자로부터 2명의 은둔형 외톨

이의 부모를 소개받았지만 그 중 1명은 더 이상 자녀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면담을 거절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7명이고 연령은 50대가 4명, 40대가 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명, 여성이 6명이었다. 신앙생활 기간은 모태신앙이 2명, 40년~49년이 3명, 30년~39년이 1명, 20~29년이 1명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15세~24세이며, 자녀의 성별은 남자 5명, 여자 1명이다. 재학중인 자녀는 2명, 그 중 1명은 장기결석이 4개월동안 지속되었다. 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녀는 4명, 3명은 학습 관련 활동이 전혀 없고, 1명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친구가 전혀 없었고 1~2명의 친구가 있는 자녀는 3명이었다. 4명은 은둔기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2명은 학원, 편의점 등의 간헐적 외출이 있었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연구계획을 한 후 2018년 1월부터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하면서 이를 토대로 면담질문지를 개발하였다. 1차 개발된 면담질문지에 관해 질적 연구 전문가의 점검과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고 2018년 6월에 최종 면담질문지를 완성하였다. 2018년 7월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 신청하였고, 그 해 8월 13일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0월 26일에 시정 승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11월 9일에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승인 번호: KU IRB 2018-0073).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03월 02일까지로 자료를 통하여 더 이상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면담은 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 과정 중에 확인해야 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추가 질문을 하여 현장의 메시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으로, 이야기가 전제되는 면담은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와 관점, 그들의 주관성, 의식,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심층면담은 자연스럽지만 목적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며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다(이현철, 김영철, 김정식, 2013).

“현재 자녀는 어떤 상황입니까?”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 상황에서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끌어내고자 했고 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가면서 추가 질문을 이어나갔다.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체험, 그 자체를 탐구하는 질적연구 방법이다(김영천, 이현철, 2017).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의 수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첫째, 여러 번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표현한 그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지속하여 대략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자녀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자료 전체를 천천히 읽으면서 기독교 상담학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 단위를 구별했다. 참여자가 겪은 경험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사자료를 꼼꼼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현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단위를

구별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한 번 구별된 의미단위는 재수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의미단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참여자의 일상적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연구현상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은둔형 외톨이 자녀의 크리스천 부모가 겪는 경험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맞추고 참여자의 말로 표현된 의미단위를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상상의 변형과 반성을 동원하여 적절한 표현이 얻어질 때까지 기독교 상담학적 차원에서 여러 번 심사숙고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딩 전략을 몇 가지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감정적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감정코딩을 활용하였다(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2016). 감정코딩은 연구자가 추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참여자가 드러내는 감정과 관련된 언어로 코드를 주는 전략이다(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2016).

다음으로 인 비보 코딩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자료에서 찾아낸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언어가 학문적 언어로 변형될 때, 현상학적 환원을 유지하여 현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문적으로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경험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경험 특성을 고려하면서 변형된 의미 단위에 내포되어 있는 통찰을 상황적,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본질적인 의미로 추출된 구성요소들을 인과적 속성에 따라 열거하고 비교하면서 공통적 속성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서 기독교상담학 연구경험 또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활용 경험이 많은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체험에 관해 가장 적합한 구조가 생성될 때까지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배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변형된 의미 단위가 일관된 구조로 통합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가 표현한 의미가 구성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원 자료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다섯째,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질구조를 통하여 파악된 경험의 의미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술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질적 구조에 대한 기술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보이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고 있는 경험에 관한 6개의 구성요소는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개념들을 비교, 범주화, 재조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도출하였다.

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에 관한 구성요소

본 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은 구성요소 3개, 하위구성요소 12개로 도출되었다. 구성요소3개는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의 하위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에 관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	방문을 부수고서라도 아이를 끄집어내고 싶음
	순간순간 충격 받음
	아이를 걱정하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임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음
	아이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	아이에게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음
	'나 몰라라' 하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함
	나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음
	부정적 감정이 소용돌이 침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	은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함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망함
	도움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고 역장이 무너짐

(1)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 은 하위 구성요소 5개가 도출되었다. 하위구성요소는 ‘방문을 부수고서라도 아이를 끄집어내고 싶음’, ‘순간순간 충격 받음’, ‘아이를 걱정하다보면 두려움에 휩싸임’,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음’, ‘아이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 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고통의 시작점은 자녀의 은둔이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로 괴로워 했고 대응과정에서도 혼란스러워 했다. 은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자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은 충격과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자녀가 은둔할 때 자녀가 은둔의 공간에서 나오기를 참여자들은 간절하게 원했고 그 간절함은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참여자의 자녀들은 은둔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였고, 참여자들은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 쳤다.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자녀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자녀의 등교거부 자체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등교거부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가 은둔하면서 외모를 가꾸지 않아서 변해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 전까지는 인정하기 싫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암진단을 받는 것처럼. 히키코모리가 맞는 거예요(참여자 5)

저도 벗은 모습을 그 중간 어느 즈음에 식겁했어요, 씻고서 나왔던 거예요, 머리를 감고서 나왔었는데 이게 아주 빠짝 마른 애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 가지고 산속에 버려진 늑대소년을 보는 기분이었어요(참여자 4)

참여자들은 자녀에 관한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를 염려하기도 하고 밤과 낮이 바뀐 생활패턴, 나쁜 식습관 등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가 평생 은둔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였다.

저러다가 아이가 미치는 것 아닌가 나중에는 별 상상이 되는 거예요(중략) 저 달힌 문만 바라보면서 평생 가면 어떡하나(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까다롭고 성향이 독특하여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기분을 살피면서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녀가 참여자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할 때 무서웠고, 자녀의 기분, 폭력성, 성향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안쓰러웠으며, 또한 자녀가 자살하고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여자들도 같이 죽고 싶어 하였다. 자녀가 자신의 이름조차 좋아하지 않을 때 한 참여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자기는 죽는다, 살기 싫다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깐 그게 제가 힘들었었죠(참여자 6)

(2)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은 하위 구성요소가 4개가 도출되었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아이에게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음’, ‘나 몰라라’ 하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함’, ‘나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음’, ‘부정적 감정이 소용돌이 칩’이었다. 참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초래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어갔다. 참여자들은 고립과 단절 속에서 점점 소진되어 갔다.

참여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경험했다. 자녀가 옆에 있어도 그 자녀와 눈을 맞출 수도 만질 수도 없었으며, 은둔형 외톨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미워하고 거부할 때 참여자들은 자녀와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왜 나한테 화날 일이 뭐지 싶을 정도로 왜 나랑 말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문을 애가 안 잠그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고 그랬었어요, (중략) 바로 옆에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는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참여자 4)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를 가족과 함께 해결하고 싶었지만 같이

사는 가족은 관심조차 없거나 또한 자녀의 은둔문제로 가족들의 비난을 들어야 할 때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다른 자녀가 은둔하는 자녀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불편해하였다. 자녀가 은둔하면서 가족이 같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이 참여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였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5분 대기조처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이 참여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참여자들도 자녀의 감정상태와 점점 비슷해지는 것을 겪었다.

학교에 누구 안 왔습니다, 저는 사색이 돼서 일하다가 뛰어가고를 많이 했죠.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에 대해 수용, 이해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녀의 문제를 표현하기 어려웠고 극도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은둔이 감당이 안 돼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일부 참여자들은 자살충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내 자식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구 하고 나눌 수도 없고 혼자 부대끼면서 해결책도 모르고, 이야기할 데가 없고 (참여자 5)

매일 울었어요, 얼굴이 안 부어가지고 다닌 날이 없어요(참여자 7)

(3)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는 하위 구성요소 3개가 도출되었다. 하위

구성요소는 은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함,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망함', '도움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고 역장이 무너짐' 이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자녀를 돕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했고 자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았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녀의 은둔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희망의 끈을 잡기가 힘들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은둔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시도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기관, 전문가, 정보 등이 없어서 힘들어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도 가봤었고,
또 저는 대안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훑어 봤었구요, 학교밖청소년
센터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두드려보긴 했는데(참여자 4)

참여자들은 자녀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다녔지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 전문정보를 거의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전문가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상담센터도 갔었어요, 그것도 설득을 해서 가서 상담센터를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깐 상담하시는 분이 중간에 포기했어요(참여자 5)

2)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영적 경험에 관한 구성요소

본 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영적경험은 구성요소 3개, 하위구성요소 9개로 도출되었다. 구성요소 3개는 '바닥으로

치닫는 나의 믿음’,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영적 경험의 하위구성요소는 <표 2>과 같다.

<표 2>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영적 경험에 관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바닥으로 치닫는 나의 믿음	하나님께 화가 남
	죄책감을 견디기가 어려움
	나의 믿음 없음이 한심함
	교회가 불편함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	하나님의 사랑이 지친 나를 흔들여 깨움
	위로의 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얻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봄
	새로운 삶이 꿈틀거림

(1) 바닥으로 치닫는 나의 믿음

‘바닥으로 치닫는 나의 믿음’은 하위 구성요소 4개가 도출되었다. 하위 구성요소는 ‘하나님께 화가 남’, ‘죄책감을 견디기가 어려움’, ‘나의 믿음 없음이 한심함’, ‘교회가 불편함’이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그 단절은 하나님, 자기자신,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자녀는 은둔하고, 참여자들은 소진되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만족도가 떨어진 상태를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
았죠, 왜 나만 이러나 뭘 잘못했나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참
여자 7)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참여자의 성향, 해결되지 못한 심
리적 어려움, 성장과정, 양육태도 등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친
것 같았고, 또한 자녀의 은둔과 자신의 죄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으며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서 허우적 거
렸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본
인의 무지로 인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하신다는데 왜 나는 믿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참여자 5)

참여자들은 교회생활에서 고통을 경험하였다.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
는 것이 괴로웠고 교회 안에서 자녀 은둔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
편해하였다.

(2)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은 하위 구성요소 1개가 도출되
었고 그 하위 구성요소는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림’이었다. 참여자들
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지쳐감, 희망 없음, 하나님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을 맞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더 이상 어떤 해결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2)

어느 날은 책상에 앉아있는데 제가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방마다 벽마다 말씀들을 붙여놓고 그랬어
요, 아이한테 순간 화가 나고 그래도 말씀보고 다시 회복하고 견디
려고 그렇게 말씀 붙여놓고 그랬었거든요(참여자 4)

(3)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은 하위 구성요소 4개가 도출되
었다. 하위 구성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친 나를 흔들어 깨움’, ‘위로
의 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얻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봄’,
‘새로운 삶이 꿈틀거림’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기자신, 다른 사람, 세상과의 관계에서 회복
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 매달림은 참여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위로의 공동체를 통하여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같
은 고통을 겪는 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과 함께 기도
의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참여자들
은 새 힘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바
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자녀에게 대한 많은 기대들을 포기하
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인내
하고 기다리는 법을 알아가게 되었고 자녀의 작은 변화에 감격하게 되었
고, 자녀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

절벽 같은 절벽인데 절벽에 자녀가 그래도 살아있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를 보고 살아있는 그런, 아침에 세수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다 오고 감격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세수 하고, 밥 먹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참여자 5)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였다.

00이 일이 저한테는 결정적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된 거죠 (중략) 00이 일이 이렇게 2년 전에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총체적으로 제 삶을 다시 뒤집어 봤다고 그럴까요? 참 긍정적으로 지금 여러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참여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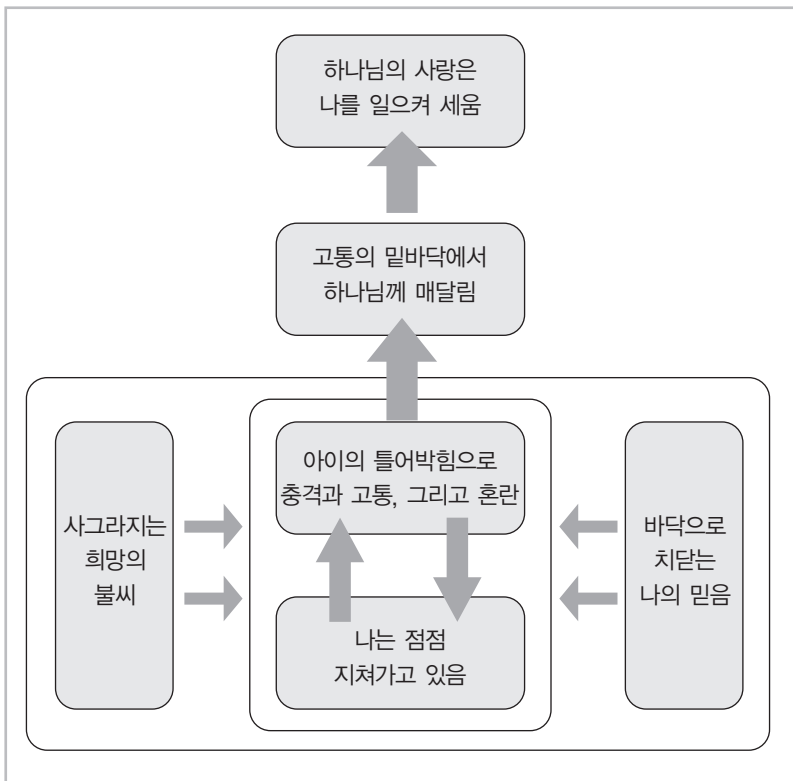
3)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

본 연구에서 구성요소 6개를 통하여 도출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과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의 두 요소는 끊임없이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는데, 부정적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아이의 틀어박힘으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혼란’과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음’의 요소들 사이의 부정적 영향력을 견고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그라지는 희망의 불씨’ 요소이다. 두 번째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서 부모는 점점 더 ‘바닥으로 치닫는 믿음’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 강화요소와 악순환의 고리 요소들은 계속된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이다. 다섯째,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움’을 체험한다. 하지만 본질적 구조는 한 번의 과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기술한 은둔형 외톨이 자녀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대한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

Ⅲ. 닫는 글

1) 논의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와 본질적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의 은둔문제로 파생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은둔공간 밖으로 나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 자녀 은둔문제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고 자녀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자녀의 문제행동과 성향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힘듦을 겪어야만 했다. 자녀가 은둔했을 때 부모가 경험하는 충격은 크다. 뭐라도 시켜보고 학교를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하는 등의 초조함이 생긴다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자녀의 은둔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 무엇인지에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회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면서 점점 소진되었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소진, 심리적 고통감 등을 경험하며 사회 속에서 점점 고립되다는 연구(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磯部 潮, 2004; 齋藤環; 2002)와 그 맥락이 일치한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개입지원단계에서 지속적인 부모지원이 강조되는 것과 그 내용이 같다(佐藤隆也, 2018).

셋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은 고통과 고립 속에서도 자녀의 탈은둔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했으며, 가족 안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정보 부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부모의 많은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치료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하다는 문제를 제의한 이향남(2008)의 연구와 맥이 일치한다.

넷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은 하나님, 교회와의 관계에서 연결을 경험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불쑥 불쑥 올라와서 버티기 힘들어하였고, 부모 자신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괴로워하였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부모가 심리적 갈등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했다는 남경빈(2018)의 내용과 같다.

다섯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다. 부모들은 기도 밖에는 할 수 없었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 애절하게 매달렸다. 최은아(2016)의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자에게 의지한다는 연구와 내용을 같이 한다.

여섯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영적으로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회심을 체험한다. 회심은 분열과 잘못,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던 자아가 종교적 실재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감 있고 의롭고 행복한 자아로 변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도덕적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James(1902)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부모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Spilka & Ladd, 2013)하면서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기도와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녀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일곱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볼 때 일곱째,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자녀의 은둔은 악순환되면서 그 고리가

강화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고립된 구조는 사회 시스템, 부모, 자녀가 서로 섞이지 않으며, 연동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 시스템, 부모, 자녀 서로 간에 가해진 힘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변환되어 악순환을 만든다. 가족으로부터도 자녀가 은둔하고 있으면 그 고립의 세기는 더욱 강해진다. 장기간에 걸쳐서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점차로 그 가족도 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磯部 潮(200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여덟째, 자녀가 은둔하면 그 부모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겠다는 불안과 초조감이 생기고,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의 동기로 자녀를 치료기관에 데리고 가고 싶어진다. 자녀의 치료동의 없는 치료과정은 자녀의 분노와 불안을 높여서 더 은둔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齋藤環(2002)은 빨리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치료자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아홉째, 부모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고립의 악순환 고리를 끊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가족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변화는 큰 영향력이 있다. 은둔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소모전이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부모가 자녀가 자기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자녀의 은둔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시도가 있을 때 자녀의 은둔에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다. 공감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친절은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게 요청되는 자세다.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치료적 태도다(齋藤環, 2002).

2) 의의와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은둔형 외톨

이의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영적 체험에 관한 본질과 의미구조의
 앎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체계 및 그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경험하는 체험에 대해 본
 질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일곱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고통
 과 갈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
 가 탈은둔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기 이전에 고통받는 한 인격체로 보
 면서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구축 및 심리상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크리
 스티천 부모는 심리적 고통 속에서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였다. 기독교적
 상담접근을 통하여 그 부모의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영적 변화를 이
 해 받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어떤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이 겪고
 있는지가 본 논문을 통하여 드러났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의 부모를 위한 성경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영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자
 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법, 성경적 자녀양육법 등의 교육을 받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현
 황과악, 원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원기관 등
 을 통하여 부모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
 게 바라보고 대하는 지에 대한 성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의 은둔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녀의 은둔문제를 더 키웠다. 일본의 지원체계인 히키코 모리 원스톱 정책과 같이 지원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기간,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긴급 대응 네트워크, 조기개입 및 예방 네트워크, 진학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이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연구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체험하는 심리적, 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신의 심리적, 영적 성장을 통하여 자녀와의 관계에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기독교 부모상담 전문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적, 영적으로 부모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교회 내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였다. 교회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경청하여 같이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첫째,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의 은둔 정도에 따라 부모가 체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은둔 정도에 따라 부모가 겪는 체험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가 겪는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타 지역의 참여자들보다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많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자조모임과 같은 연대모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었다. 지역별로 겪는 부모의 체험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 차이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성격특성,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문제해결능력 등의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대상의 수가 7명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용원 (2014).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상담사역**. 서울: 기독교.
- 고스게 유코 (2012). 은둔형 외톨이 사례연구 :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천 (2017). 초급 군종목사의 군 생활 갈등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예슬 (2007).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주 (2018). **어쩌다 히키코모리, 일떨결에 10년**. 서울: 한국경제신문.
- 김종진 (2006). **달팽이 껍질 속으로 숨을 외톨이**. 서울: 해피아워.
- 김효순 (2014).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게임중독행태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8), 177-185.
- 남경빈 (2018). 장애자녀를 둔 목회자 아내의 심리적 갈등 경험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여진 (2007).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비교 고찰 : 발생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4). 사회적 히키코모리에 관한 일 연구: Bowen의 이론을 통해 본 히키코모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형, 이형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2009).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수준별 현황 및 촉발요인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33-53.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서울: 지혜문학.
-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2016). **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 소프트웨어**.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키코모리와 2차 분리-개별화. **연세상담코칭연구**, 4, 105-127.
- 이성록 (2007). **갈등관리론**. 서울: 미디어숲.

- 이향남 (200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계적 통합지원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철, 김영천, 김경식 (2013). **통합연구방법론: 질적연구 + 양적연구**.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정지현 (2011).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과 기독교 사이버상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 (2016). 신생아의 NICU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고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장국 (2010). **영성형성과 돌봄을 위한 기독교영성신학**. 서울: 대서.
-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부모교육프로그램 지도자 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청소년 위원회.
- 磯部 潮 (2009).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 세상과의 소통을 갈구하는 23 명의 이야기(이성동역, 「ひきこもり」がなおるとき: 23人の臨床例). 서울: 대숲바람. (원전 2004 출판)
- 松本 訓枝, 日比 薫, 谷口 恵美子 (2018). ひきこもり状態にある子どもの親が語る困難. *岐阜県立看護大学紀要*, 18(1), 101-111.
- 伊藤順一郎(2004). **地域保健におけるひきこもりへの対応ガイドライン**. じほう.
- 齋藤環 (2013). ひきこもりと不登校. *公衆衛生*, 77(5), 355-359.
- 齋藤まさ子, 本間恵美子, 真壁あさみ, 内藤 守 (2013). ひきこもり親の会で母親が子どもとの新たな関わり方を見出していくプロセス, *家族看護学研究*. 19(1), 12-22.
- 齋藤環 (2012). 은둔형 외톨이 : 그 이해와 치유법(김경란, 김혜경 역, ひきこもり救出マニュアル). 서울: 파워북. (원전 2002 출판).
- 齋藤茂太 (2000).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유정 역, なぜか人に好かれる人の共通点). 서울: 시학사. (원전 1998 출판)
- 佐藤隆也 (2018). ひきこもり支援の変遷と課題. *川崎医療福祉学会誌*, 28(1), 27-36.
- 厚生 労省 (2004). 10代 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

動のガ イドライン—精神保険福祉センタ'保健所, 各市などではど
う 対応するべきか. 支援するべきか'厚生厚生労働省.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Giorgi, A. (2012). The descriptive pheo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onomenological Psychology*. 43, 3-12.
- James, W. (2000).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김재영 역,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서울: 한길사. (원전 1902 출판)
- Spilka, B., & Ladd, K. L. (2013). *The psychology of prayer: A scientific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kindle version] Retrieved from Amazon.com.
- KBS 미디어 (2005). 추적60분 1 : “은둔형 외톨이” 실태보고 - 나는 방에서 나오
고 싶지 않다 [비디오 녹화자료]. 서울: KBS 미디어.
- KBS 미디어 (2005). 추적60분 2 : “은둔형 외톨이” 실태보고 - 나는 방에서 나
오고 싶지 않다 [비디오 녹화자료]. 서울: KBS 미디어.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Kim, Shin-a* Kang, Yeon Jeong**

In this research, psychological conflicts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and the meaning of their spiritual experiences in those conflicts are to be studi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tial structure of th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by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among sev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them. Seven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 conclusion was drawn by apply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Giorgi. Th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can be categorized into 6 components, 21 sub-components, and 53 abridged units of meaning in this research. The six components are as follows: “shock, distress and confusion caused by the seclusion of the children,” “becoming exhausted by degrees,” “the waning hope,” “the plummeting faith of mine,” “grasping the hands of God at the bottom of the pain,” and “God’s love recovering me.” Through this research, th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were revealed. Also, I cam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upport to relieve them of difficulties and exhaustion. I expect this research to make a contribution to developing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es and several programs for helping those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Key words: parents of adolescents in Hikikomori,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psychological conflict, spiritual experience

* Kosin University, Students' Counseling Center / Professional Counselor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Professor